

아르메니아, 효고행동강령(HFA)로 재해 위험 줄여



Armen Yeritsyan 아르메니아 비상대책장관은 효고행동강령이 아르메니아에서 재해위험경감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다.

예레반, 2014년 7월 16일 - 아르메니아 비상대책장관은 효고행동강령(HFA)이 아르메니아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노력에 “큰 진전”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Armen Yeritsyan 장관은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있을 세계 재해위험경감회의의 좋은 시작점인 효고행동강령을 10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르메니아는 더 많은 국가들이 재해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새 강령을 통해 발전될 것이라며 내년 3월에 이루어질 새 행동강령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장관은 덧붙여 “아르메니아는 2005년에 효고행동강령시행을 시작하면서 아르메니아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을 볼 수 있었다. 재해경감 정책강화, 재해위험경감의 정부정책과 계획 통합, 우리의 개발과 안전증가를 위한 국가의 우선사항으로 재해문제를 인식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재해위험경감이 정부부처 혹은 정부기관 단독으로 이룰 수 없으며 여러 정부부처가 많은 파트너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현재 적십자 등 많은 파트너들의 협력과 노력 덕분에 재해위험경감을 위해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국제 경험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르메니아와 지역 내 지자체와 정부역량 강화에 중요한 재해위험경감 국가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Yeritsyan 장관은 수도 예레반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경감 주류화 포럼’에 대해 다뤘다. 장관의 연설 덕분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러시아, 타지키스탄 내 60개 도시 지도자들과 재해위험경감분야 종사자들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Yeritsyan 장관은 “아르메니아 인구의 65 퍼센트가 현재 도시에 거주 중이며 이런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우선사항이다. 아르메니아는 UNISDR 과 믿음직한 협력관계를 유지 해오고 있으며 우리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MCR Campaign)>에

10 개의 아르메니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UNISDR 과의 협력관계와 캠페인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인천에 사무실이 위치한 UNISDR 의 국제교육훈련기관(GETI)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초기단계로 선두주자인 참석자들을 이끌었다.

아르메니아는 지진, 산사태, 홍수, 가뭄, 폭풍을 포함해 다양한 재난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1988 년 12 월에는 Spitak 지진으로 인해 최소 25,000 명이 사망하고 517,000 명이 집을 잃었다.

날짜: 2014년 7월 23일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UNISDR AP)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Incheon (UNISDR ONEA-GETI)

관련링크

[Third 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Making Cities Resilient: My City is Getting Ready campaign](#)
[Armenia: Country updates](#)
[Stepanavan Resilience Action Plan](#)
[Final report of the forum](#)

키워드

주제: 관리방식

국가: 아르메니아

지역: 아시아